



기독교 구호단체인 사마리아인의지갑 소속 의료 사역자였던 브랜틀리 박사가 감염 전 라이베리아의 ELWA 병원에서 에볼라의 확산을 방지할 소독제를 만들던 모습 (사진 제공: 사마리아인의지갑)

전세계 한인들 코리안의 노래로 하나되자

이정근, 김삼도, 백경환 목사 등 LA 목회자들 노래 지어 보급

“우리는 코리안 하얀 무궁화... 떨어져도 다시 피어나 어두운 온 세상 새 희망 심네”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인들이 노래로 하나되자는 운동이 LA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교계 원로인 이정근 목사와 음악인 김삼도 목사, 백경환 목사 등은 이 목사가 작사한 “코리안의 노래”를 통해 전세계 한인들이 ‘코리안’이라는 정체성 아래 하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노래의 역사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을 방문했던 이정근 목사는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은’,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등 남한과 북한이 함께 부르는 곡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남북한 동포가 함께 부를 뿐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진 한인들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정근 목사의 이런 생각에 미주지역의 음악인들이 뜻을 모았다. 문인으로서 활동해 온 이정근 목사는 2008년 노래의 가사를 지었고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으로 유명한 박재훈 목사가 같은 해 곡을 붙였다. 이듬해에 작곡가 황의구 교수가 또 다른 곡조를 붙였고 가장 최근인 2014년, 백경환 목사도 작곡을 했다. 이들은 코리안의 노래 보급협회(회장 김삼도 목사)를 조직하고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곡을 알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YTN, 통일부 TV 등이 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작사자 이정근 목사는 “우리 시대의 민족적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의 정신을 드높이고, 해외 코리안들을 포용한 모든 코리안들이 함께 불러 한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아성과 사명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면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한국적인 꽃들이 무궁화, 진달래, 민들레로 비유하는 은유법을 사용했으며 한국 민족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한(恨)을 승화시켜 온 세계에 희망, 사랑, 평화를 심는 일꾼 되는 것이 그 사명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과 함께 부를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도록 작사와 작곡에서 최대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교계 연합해 차세대 장학금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해부터 시작한 ‘차세대 장학금’이 올해도 준비 중에 있다. 지난해 극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두 교협은 별도의 모금 행사 없이 순수 헌금만으로 무려 8만1700달러를 모금해 9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큰 화제가 됐다.

장학생은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9학년부터 대학생이며 크리스천이면서 지난 1년간 학교 성적이 GPA 3.5 이상이어야 한다.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과 가족 1년 수입 3만불 이하 가정에 우선권이 있다. 전체 장학생은 고등학생 30%, 대학생 70%로 구성돼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에 비중을 두었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일단 저소득층에 20%를 할애해 긴

급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다. 타민족을 위한 비율도 10%가 배정되어 있다.

희망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사본, 담임목사 추천서, 지난 1년 성적증명서, 현재 출석하는 교회 주보, 2013년 TAX Return 사본을 남가주교회협의회나 OC교회협의회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후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도 이 두 곳으로 헌금을 낼 수 있다. 장학금은 9월 7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민경영 목사)에서 수여된다.

▶ 남가주교회(Pay to Order: CKCSC)
 981 S. Western Av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의 408-480-3171
 ▶ OC교회(Pay to Order: CKCOC)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714-699-0210

에볼라 감염 美 선교사들 회복 추세

현지인 에볼라 치료하다 감염돼 현재 치료 중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감염돼 상태가 위중했던 선교사 2명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의사인 켄트 브랜틀리 선교사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이끄는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 소속이며 낸시 라이트블 선교사는 SIM USA 소속이다.

이들은 라이베리아의 한 치료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섬겨 왔다. 이들은 에볼라에 감염된 현지인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다가 자신들도 감염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감염 후 구토와 고열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 미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이송 전 지맵(ZMap)이라는 실험 단계의 치료제를 투여받고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증상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SIM USA의 브루스 존슨 회장은 “앞으로 며칠 동안 이들의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SIM과 사마리아인의지갑은 미국과 세계의 교인들이 우리의 두 선교사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라이베

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사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브랜틀리 선교사의 가족들은 성명을 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모두의 기도가 켄트에게 힘을 주었고 이 끔찍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신앙에 의지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 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우리 가족은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큰 힘을 얻고 있다. 켄트는 지금 매우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지만 그의 영혼은 이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브랜틀리 선교사와 라이트블 선교사를 위해서는 물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감염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선교사의 가족들은 현재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있다.

7월 초부터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서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인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6일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중 93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마리아인의지갑은 “1976년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래로 지금이 가장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 단체는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민 교육이 필요하다”며, “기도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세계 교계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기 전파가 아닌 혈액이나 체액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과의 직접접촉,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등을 자제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 시 발열, 홍반, 구토, 설사, 두통,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외출 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음료를 마시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등이 예방법으로 권고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서아프리카 지역 여행과 교역을 자제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현정 기자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 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Health Net **DK HEALTH INSURANCE, INC.**

헬스넷 보험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DK건강보험이 헬스넷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소개합니다.
 (구 하나건강보험)

KAKAO TALK

213-500-4563
 ID:DKHEALTH

1. PPO 스타일의 HMO 플랜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2. PPO 스타일의 HMO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 매우 좋아합니다. HMO는 매달 소정의 담당환자의 수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지만 PPO는 환자의 방문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습니다. 헬스넷의 오바마 건강보험은 HMO이지만 환자 방문에 따라 의료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매우 좋아합니다.
3. DK건강보험의 진정한 건강보험 프로들의 에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서비스를(카카오톡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 0146629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신앙공동체 역할 지대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종교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미주평안교회서

작년 4월 캘리포니아 주레이크우드에 있는 새들백교회 릭 워렌 담임목사의 막내아들 매튜 워렌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데 이어, 최근 조지아 주에 있는 기독교대학 브루튼파커칼리지(Brewton-Parker College) 총장 아들 블랙스턴 케이너(15)가 목숨을 끊어 교계에 충격을 안겼다.

교회도 정신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느끼고 의학적, 전문적 치료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한 예가 지난 3월에 새들백교회에서 열린 ‘교회와 정신건강 회의’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 개신교 지도자를 비롯해 3천 명 이상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에서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 주최로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국의 혜택”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 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안정영 코디네이터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우울증, 자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독,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한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안 코디네이터는 “미국연방약물남용정신건강청(SAMSHA)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미국 성인의 20%가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며 정신질환에 관한 경각심을 높였다.

그는 정신건강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상서비스, 예방 및 초기 개입, 긴급서비스, 생명의 전화, 거주서비스, 재산관리, 노숙인 아웃리치를 소개했다.

“정신건강국은 클리닉뿐 아니라 가정, 현장방문, 카운티 교도소, 청소년 교도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개별 치료, 그룹치료, 약물치료, 사례치료, 위기개입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는 복지혜택, 주택 바우처(주거급여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 학교 및 교육 기관 등록, 기술 교육을 비롯한 직업 찾기, 가족 재결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나 가족, 주변 사람에게 자살 징조 등 심각한 위험 징후가 발견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핫라인(800-854-7771)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정신적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응급치료 센터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국의 혜택”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터와 급성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복에 도달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보호국에 관계된 아동, 재향군인, 청소년 수용소(Juvenile Halls)와 캠프, 카운티 교도소, 노숙인에 초점을 맞춘 특수그룹 전용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 코디네이터는 “특히 재향군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률이 높은 그룹에 속했으며, 이들 가족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해하는 데 반해 남성들은 신경질과 짜증이 늘고 폭력적이고 과격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자살과 관련해 “겉으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좋은 이미지를 지닌 이들이 자살을 한다”며 교회 안에도 자살의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신분이 없는 이민자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무보험자에게도 응급상황일 경우 카운티 자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며 문제를 방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권고했다.

또한 안 코디네이터는 “성직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영적 문제 해결을 돕고 커뮤니티를 통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LA다운타운 정신건강 센터(DMHC, Downtown Mental Health Center), SSG(Special Service for Groups) 노인복지부(OAD, Older Adult Division), 나성영락교회 산하 YNOT재단의 ISM 아웃리치 서비스를 소개했다.

DMHC 담당자는 “모든 분이 와서 진단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에 맞으면 정신과의사와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다르나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처음 방문하는 경우 자격심사와 인터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시간이 소요된다. 아침 일찍 방문해야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부 프로그램 담당자는 “간병인 보조를 비롯해 정서적으로 힘든 노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메디칼, 메디케어에 있는 경우 또 소득이 없을 경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HMO(모든 의료혜택을 주치의와 상담한 후 보험혜택 승인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가 있는 분은 주치의의 의뢰(REFER)가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ISM 담당자는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보험과 서류 없이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따라 서비스 초기에 25분을 지불한 경우가 있다. 전통적 치료법, 접근법 대신 미술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 : <http://dmh.lacounty.gov>

▷ ACCESS line(정신건강 서비스 응급전화) : 800-854-7771

▷ 다운타운 정신건강 센터(DMHC) : 213-430-6700, 529 S. Maple Ave. Los Angeles, CA 90013

▷ SSG 노인복지부(OAD) : 213-553-1884(Ext: 219), 1730 W. Olympic Blvd. 3rd Floor, # 100 Los Angeles, CA 90015

▷ YNOT 재단 ISM 프로그램 : 323-488-5800, www.ynotfoundation.org,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한인기독교교당당소 : 213-738-6930, www.kaccla.net, 500 Shatto Pl. #507 Los Angeles, CA 90020

한 주디 기자

군사랑선교회 7월 특별모임

휴전 61년간의 신앙의 결과 나눠



군사랑선교회 특별모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김진영 장로다.

7월 26일(토)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희창박사)는 월드미선대학교 6층 채플에서 “한반도 휴전 61년간의 신앙적 결과들”이란 제목으로 특별 모임을 열고,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국군 관련 특별 보고를 들었다.

이중수 부회장이 모임을 인도하는 가운데 이신도 장로의 기도 후, 김희창 목사(남부개혁신대 LA총장)는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전 61년간의 신앙의 결과들’에 대해 설교

했다. 설교에 이어 김진영 장로(비전 2020운동본부장)가 한국 군 복음화와 육군훈련소 성전건축 진척 상황을 보고했고 ▲ 조국과 북한, 미국을 위해 ▲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군 복음화를 위해 ▲ 회원 한자분을 위해 ▲ 회원 배가 운동을 위해 중보기도 한 후 문대룡 선교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이경호 목사가 찬양하는 가운데 헌금한 후, 축도와 애국가로 예배를 마쳤다.

박기성 기자

가정 사역의 대가 노만 라이트 박사 세미나



노만라이트박사

한국에도 잘 알려진 가정사역자 중 한 명인 노만라이트 박사가 은혜한교회에서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부부 처음 사랑 되찾기’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라이트 박사는 웨스트몬트칼리지와 풀러신학교, 페퍼다인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웨스턴신학교와 바이올라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복한 부부 대화의 열쇠>, <결혼: 날마다 새로운 헌신>, <너와 나는 다를 뿐이야>,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 <부모 말의 파워> 등 80여 권의 책을 썼으며 이중 20여 권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됐다. 그는 현재 바이올라대학교의 교수로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며 참석자 간의 토의 시간도 있다. 등록비는 30불(부부 50불)이며 차일드케어를 원할 경우, 자녀 1인당 10불이다.

▷ 문의 : 714-345-7231

김나래 기자

서울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 LA 순회공연

서울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오는 15일(금) 저녁 8시 은혜한교회에서 순회연주 공연을 한다. 이어 17일 오후 12시 30분에는 나성영락교회, 오후 5시에는 인랜드교회에서 각각 공연이 있다.

“Peace Speaker”라는 주제 아래 광복절 기념 음악회로 열리는 이번 연

주회에서는 헨델의 작품 “the Anthem on the Peace”를 위시해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호산나 찬양대는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1백여 명의 단원이 순회연주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해외순회연주를 실시하고 있는 정상급 수준의 찬양대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월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박사] 과정 개설!!

박사과정

선교학 박사(D.Miss)
유학생 1-20 발급

가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4년 8월 30일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MA ICS)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발급
- 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미 군목 장교 지원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 온라인 과정 : 수시모집
- English Track(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내 (Tel: 213-479-4500)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미션대학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준회원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은혜교회내)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admissions@gm.edu

아가페크리스찬대학, 강사진 보강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해 9월에 새 출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 보여주는 인재 길러야”

지성, 인성, 영성 고루 갖춘 사역자 배출 위해 31년 전 설립

“목사가 돼도 죄성과 쓸데없는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이게 해결되지 않아 돈 문제, 명예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죽고 바스러져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빚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 것 같이, 그 과정을 거쳐야 쓰임 받는다.”

아가페크리스찬대학(Agape Christian University, ACU) 총장 이시근 목사는 오늘날 자기부정과 비움, 헌신을 잃어버린 목회자의 모습과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에 안타까워했다.

ACU가 이번 9월 가을학기를 맞아 가정상담대학원 기독교상담학 등을 새롭게 개설하고 새로운 교수진을 초빙하고 재출발의 뜻을 올리는 이유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강력하게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에 군사를 기르기 위해서다. ACU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8천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31년이란 짧은 역사를 지닌 학교다.

기독일보에서는 새로운 재출발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ACU를 방문해 이번 학기 계획과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대해 들었다.

ACU는 어떤 학교인가?

이시근 총장: 이 학교는 1983년 이사장인 김요한 목사님에 의해 지성, 인성, 영성을 두루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첫째 ‘확신(confidence)’ 즉 자기 분야에 관한 한 실력이 있는 사람을 기르고 둘째 ‘인격(character)’을 제대로 갖춘 사람으로 키우며 셋째 양떼를 위해 온전히 자기 삶을 헌신(commitment)할 수 있는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세워졌다.

개설되는 과목과 학위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관호 부총장: 올해 9월 ACU는 목회학을 중심으로 선교학, 영어성경, 가

정상담학, 기독교상담학이 새롭게 개설되며 학위 과정으로는 목회학 학사,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 등이 있다. 특히 국제 CCC패밀리미니스트리와 연계해 활동하며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Family Builder Ministry)이라는 단체를 통해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한 금병달, 금정진 부부를 교수로 초빙했다.

현재 학생비자 발행과 학위 인가 상황은 어떤가?

이시근 총장: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비자(I-20) 발행 허가를 2009년에 받았고 작년엔 갱신했다. 학위 인가와 관련해 ABHE와 ATS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가 속한 교단은 무엇이며 장학금은?

박문환 사무처장: ACU는 말씀과 성령사역의 균형을 갖춘 국제오순절성결교단(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IPHC) 소속이나 조교파로 운영되며 다른 교단에서 사역할 수도 있다. 교단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학생에게는 학비 절반을 장학금으로 제공한다.

교육의 특징이나 중점이 있다면?

박문환 사무처장: 특히 영성에 있어서 성령 사역을 강조한다. 사역 현장에서는 ‘듣는 복음’뿐 아니라 ‘보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능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신학교에서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학문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졸업 후 현장에 뛰어 들었을 때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 신학교 커리큘럼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대로 된 사역자를 배출하려면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역현장에 직접 들어가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들려줄 뿐 아니



아가페크리스찬대학 이시근 총장(중앙), 이관호 부총장(좌), 박문환 사무처장(우)

라 보여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신학교가 되려는 취지로 세워졌다.

ACU는 이론과 현장 모두에 초점을 맞췄다. 40개국 이상에 아가페크리스찬대학에 소속된 선교지가 있어 졸업 전에 선교지 인턴십 과정을 밟을 수 있게 해 놨다. 이는 일반 신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역자훈련원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고 선교사로 갈 사람이나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사역자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박문환 사무처장: 9월에 ‘국제사역자훈련 과정’도 개강한다. 사역자훈련원(International Agape Ministerial Training Center)은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나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약 23년 전 설립됐다.

러시아의 경우 사역자훈련원을 통해 러시아에 4천여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지도자를 배출했다. 현재 엘살바

도르, 에콰도르, 멕시코 등 남미와 인도에서 현지인을 훈련해 그들이 자립적으로 선교하도록 돕고 있다. 남미에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신학교육의 필요를 느끼거나 교육을 받으러 사역 현장을 놓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찾아간다.

사역자훈련원의 프로그램은 두 종류가 있다. 사역자 훈련과정과 통신신학교과정이다. 사역자훈련과정(2년 과정, 5학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자의 동영상과 텍스트를 80여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며 ACU로부터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일으킨 라인하르트 본케(Reinhard Bonnke) 목사, 세계적 여성 사역자 조이스 마이어(Joyce Meyer) 등 인정받는 각계각층의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통신신학교과정은 사역자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2년제), 목회학 석사 학위(3년제) 취득이 가능하다.

언어장벽, 건물 비용 등 재정적 부담, 신학교수 수급 문제, 커리큘럼 문

제, 정부 박해로 인해 공식화할 수 없는 문제 등 선교지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역자훈련원이다. 어디서든 어떤 선교사든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현지 언어로 교육할 수 있는 이동식 신학교다.

다음은 이 학교의 개강과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 개강일시: 9월 2일 저녁 7시
 △ 조건 충족시 등록금 50% 장학금으로 지급 가능, 청강생 수강가능 과정 일정
1. 목회학 학사 및 석사 과정: 월, 화, 목 오후 7시-10시 Tel: 310-539-1100
 2. 사역자 훈련 학사 및 석사 과정: 토 오전 10시-오후 6시 Tel: 909-438-8345
 3. 기독교상담대학원: 목 오전 10시-오후 6시 Tel: 714-298-8763
 4. 영어 목회학 학사 과정: 월 정오-오후 10시 Tel: 310-749-0592
- 웹사이트 : www.agapecu.org
 주소 :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한 주디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인사: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4일~15일 - 서부인사팀)

T.213.453.6624 (마리타마켓점)

100% 홍삼농축액

100g 소희자가격	\$90	240g 소희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450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555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201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교육의 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8월 25일

-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 M.Div. 과정 나성영락교회 강의 개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산타페언어·문화원 수업은 공부가 아니라 실력을 쌓게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8일

- 월별 단과반 수시등록가능
- 맞춤형 수업진행 (1:1 수업, 발음교정, Speech, 영작문 등)
- 2015년 봄학기 개강 : 1월 5일 ~ 4월 17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300 office@ptsa.edu 한국 010-6612-1165 (담당 : 박정환 목사)
- ESL 문의 및 상담 : 강우중 교수 (wijkang@ptsa.edu)

1-20 발행 | 정회원 | ats 준회원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UMC, 워싱턴에서 한반도 화해와 통일 촉구

정희수 감독, 김정호 목사 등 한인들도 대거 참여



평화행진 참가자들이 백악관 앞까지 걸으며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NCKK

지난 26일 미국의 입법, 행정, 사법부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3백여 명은 거리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고 외쳤다. 특히, “문제 해결에 미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를 향해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미연합감리교회(UMC) 주관으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파운더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행진과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 행진은 UMC가 2012년 총회에서 결의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4년간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UMC는 2013년 5월 미

국 애틀랜타에서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행진에는 위스콘신 연회 정희수 감독과 UMC한인총회 통일위원회 회장 김정호 목사, 세계교회협의회(WCC) 부회장 매리 앤 스완슨 감독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 부회장 김영진 장로,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헌정 목사, 부위원장 노정선 교수 그리고 한국YWCA연합회 한미 실행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을 맺은 지 61년이 되는 날이지만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정전협정이 평화조약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목

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WCC 부회장인 매리 앤 스완슨 감독도 “61년 분단은 너무도 긴 세월이었다”며 “한반도가 하나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세계교회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계교회가 ‘8.15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정해 올해부터 기도를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올해 사용할 공동기도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평화 행진을 주관한 UMC 이외에도 미국 내 다양한 교단(미국그리스도교연합교회, 제자교회 등)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행보에 힘을 더했다. 이외에도 평화 행진이 진행된 26일을 전후해 ‘에큐메니칼 라운드테이블’(Ecumenical Roundtable)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평화포럼을 진행했고, UMC 관계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이 백악관에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시드니 사일러 한반도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UMC는 미국교회 대표단과 함께 남북한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다. 또, 2016년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교단정책도 새롭게 내놓을 계획이다. 이동윤 기자

北 억류된 시애틀 한인 케네스 배 “특사 파견해 달라” 요청

美 국무부 “즉각 석방하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한국명 배준호) 선교사가 지난 3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31일 배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다.

배 선교사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듣고 있으나 조선에 머문 지 거의 2년이 지나지 않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며 “미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배 선교사는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조선과 미국이 이제는 서로 평화를 누리는 새 세상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나는 조선과 미국을 이어주는 친선대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조선 정부가 지금까지 가족과의 전화통화나 입원 치료 등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다 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배 선교사는 “원래 가지고 있는 담석증, 지방간, 고지혈증, 전위선 비대, 척추변형증 등의 질병 이외에 최근에는 비장 비대의 증상도 나타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교화소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정신적 부담감도 있다”고 했다.

조선신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배 선교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특별 교화소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북한의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배 선교사의 가족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에 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테리 정 씨는 “오빠의

석방과 함께 오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오빠가 다시 노동교화소로 보내지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이 오빠의 석방을 위해 긴급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배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 배 씨를 특별 사면해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스웨덴 대사관 측이 지금까지 배 씨를 11차례 면담했으며, 마지막 면담은 4월 18일에 있었다”고 전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배 선교사 발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억류된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 나와 하는 이야기를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해 온 조선신보가 이날 배 선교사의 발언을 이용해 보도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배 선교사는 지난해 11월 3일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 당했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법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를 입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 주 린우드에 거주했던 배 선교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 관광여행사를 운영하며 2012년 11월 3일, 관광객 5명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던 과정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북한은 “배 선교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반공화국적인 종교활동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소위 ‘여리코(여리고) 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학생 250여 명을 관광 목적으로 나진시에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억류 전, 배 선교사는 북한 고아들을 돕고 뺑공장을 지원하는 등 수년간 구호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브라이언 기자

한국 진출하는 2세대,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정인수 목사

얼마 전,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영성집회를 인도했던 한 홍 목사(한국 새로 운교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미전도 종족화(化)’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때 복음한국을 외치며 젊음과 열정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데 헌신했던 세대는 지나가고, 현재 대학가의 복음화율은 3%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진단 때문이다. 이유가 많지만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던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개인 중심적으로 바뀌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순간을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나 교회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대학교 1학년조차 ‘너무 늦었다’고 한다. 이제는 고등학생, 아니 중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나마 순수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로 진출하기 전 마지막 관문과 같은 대학에서조차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절대 다수인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정인수 목사 역시 “한 목사의 집회를 통해서 얻게 된 충격적인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한국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 2세 자녀에 관한 이슈였다.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 교포 2세로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목사는 지적하고 있다. 최근 우리 2세 자녀들의 한국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추이가 이제는 한국 젊은이들과 경쟁을 벌일 정도라니 내게는 그것이 충격적이었다”고 칼럼 서두에 밝혔다.

이어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중략) 이렇게 한국으로 진출한 젊은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한국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과 탈선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음주 문화, 환락, 성적인 유혹이 넘쳐난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그 문

화 속에 빠져 아무런 생각 없이 음주를 배우고 일탈 행위를 배우게 된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수많은 성적 유혹으로 인해 성적인 탈선의 행위도 빈번히 일어난다. 아마도 한국으로 보낸 이 곳의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심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심각성을 일깨웠다.

정인수 목사는 “교회 청년 교역자들과 이런 이슈를 논의하게 됐고, 이제는 한국으로 보내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영적 훈련과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뿐 아니라 미주교계들이 연합해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한국에 나간 젊은이들에게 바른 신앙생활과 절제생활을 강도있게 시킬 수 있도록 한국 내 교회들과 네트워크 사역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교회들이 연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방나라 가운데도 진실과 영성으로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박헌희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 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

이 시대는 크리스천 차세대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오랜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미국 주류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훌륭한 자질이 있음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각 교회와 크리스천 기업과 사업체에서는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

1. 신청자격은 9학년부터 대학생으로 한다. (2014년9월 기준)
2.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으로 한다.
3. 지난 1년 학교성적이 GPA 3.50이상으로 한다.
4.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출석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5. 가족 1년 수입 3만불 이하 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참고사항 : 고등학생30%, 대학생70%, 최저소득층 20%, 타민족 10%

장학금 신청·보낼 서류

접수기간 : 8월 31일까지
 수여식 : 9월 07일(주일) 오후5시
 수여장소 :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신청서 (e-mail로 요청),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사본, 담임목사 추천서, 지난 1년 성적증명서, 현재 출석하는 교회 주보, 2013년 TAX Return 사본

장학금 보내실 곳

오렌지카운티교회

Pay to Order : CKCOC (OC기독교교회협의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 송규식 목사 714-699-0210
 qsong405@gmail.com

남가주교회

Pay to Order : CKCSC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
 문의 : 이주철 사관 408-480-3171
 james_0507@hotmail.com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민경엽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박효우목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에베소서 5: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며 또한 영원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총의 대상으로 붙들어 써 주시게 되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습관과 모든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골에서 그리 넉넉지 못한 형편 가운데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에 딸 둘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을 받아오고 교회에서 모범학생으로 주는 장학금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 말썽입니다. 중학교도 낙제를 겨우 면할 정도로 공부를 싫어해서 가까스로 졸업을 했고 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남이라고 집에서는 공부시켜 가문을 일으켜 보려 기대를 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공부가 죽기보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술과 노름에 빠져 부모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누나들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더럽고 추한 곳엔 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자라서 술과 도박, 음란과 방탕함으로 결국 형무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양심이 화인 맞은 심령으로 이성을 잃고 인생의 꿈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습니니다.

도박 빛에 쫓겨 다니다가 모진 목숨 죽는 것이 두려워 도적질까지 하게 되어 형무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료하고 지겹게 감옥살이를 하던 중 그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억압된 생활 속에서 고민하던 중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방탕했던 자기 인생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난 날들을 후회스러워하다가 이러한 자신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배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신앙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수가 되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제일 먼저 그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토록 속을 썩이던 자식이 성경을 통해 새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바로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모두 의아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 사모님이 장로님 딸과 그 사람을 중매했습니다. 그리고 고등성경학교를 다니면서 3년 코스를 1년 3개월 만에 끝내고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해서 결혼을 한 후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장인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 당시는 건축붐이 일어 광장한 호황을 누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령의 한 회사의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타락했다가 감옥에서 전도 받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경에 심취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습관과 모든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고방식과 말투, 행동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다시금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희생제물은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예수님께서서 피를 흘리시며 죽임 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괴로움을 덜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 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만에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내 몫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몫이 가장 유익한 것이기에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내 몫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함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피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루고 구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聖徒)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절의 어리석은 말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희롱은 상대방을 비하시켜 놀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런 말들을 삼가고 늘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고 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온전히 변화된 행동과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종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은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같은 헛된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진노(震怒)가 임할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즉, 빛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온전히 변화된 행동과 성숙한 인격으로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서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 생애에 모든 것을 모두 바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정보 총회 직업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과: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종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ongeuil@gmail.com

코현대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반주자 청빙

자 격: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info@sunhanchurch.com

문 의: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이순신 장군과 “좁은 문”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좁은 문”이라는 소설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1909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고전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 작품이 종교적 윤리와 남녀의 사랑이라는 다소 갈등의 소지가 되는 주제를 아름다운 필치로 정교하게 표현하기 때문이 아닐까? 제롬과 알릿사의 사랑은 맺어지지 않는다. 금욕적 수행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그녀에게, 그리운 연인 제롬은 늘 애절한 미련으로 남아있었다. 지드는 작품을 통하여 좁은 문이 “이성 간의 아름다운 사랑마저 우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암시하는 것 같다. “신앙의 좁은 문은,” 그러므로 “수도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청교도들의 영성은 그 끈끈한 적용 때문에 종종 기독교 내의 다른 종파에 의하여 비판되어지고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을 개혁하고 미국 독립의 정신적 기저가 되었던 청교도는 신자의 영성을 교회당과 수도원의 지역적 담장을 넘어서게 만들었다. 청교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장(marketplace), 정치의 무대, 군사 작전과 오락과 절기 등에 적용시켰다. 황제의 위치를 거절하고 호국경

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청교도 크롬웰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군사와 정치에 적용시키려 했던 사람이다. 그의 군대는 욕을 하지 않았으며, 찬송으로 군가를 삼고 긍휼과 배려로 백성을 섬기던 좁은 길을 간 군대였다. 그 군대는 강력했던 유럽의 군대를 여지없이 격파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 크롬웰은 자신의 선 곳에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 수도원에서 일상생활로 내려왔다면, 이러한 영성을 이어받은 우리도 좁은 길을 바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은 어느 영역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좁은 길은 목회자만의 길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걸

어야 할 길이다. 크롬웰과 그의 군대가 걸었던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즈음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역사서, 지도력에 대한 연구서, 평전 및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명량”이라는 영화는 개봉 첫날에 67만의 관객을, 이를 동안에 100만 이상의 관객을 넘겼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떤 장군이라도 이순신보다 더 나은 수 있었을까? 이순신은 장군으로서 좁은 길을 간 사람이다. 23전 23승의 해군제독이다. 그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한 장군이다. 조선이 이미 개발한 대포와 다소 느린 판옥선을 사용하여 원거리 전투에서 적을 괴멸하고, 일본의 강점인 조총과 근접전을 피한 전술의 귀재이다. 그는 상황의 어려움을 딛고 승리의 좁은 길을 찾아 나라와 민족을 지킨 애국자이다. 영국의 해군중장 G.A. 발라드는 충무공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위대한 해상지휘관들 중에서도 능히 맨 앞줄을 차지할만한 이순신 장군을 존재하게 한 것은 신의 섭리였다.” 우리도 이처럼 건강한 교회,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표준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어떤 표준을 채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위(표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만’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붙이느냐, 아니면 달러라는 화폐 단위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단위를 ‘믿음의 단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13만 5,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대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3만 2,000명. 산술적으로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투를 위해 그들 중 단 300명만을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표준(단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기드온은 ‘믿음’이라는 단위를 채택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 믿음의 용사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전투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던 예리고성 공략 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다. 예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믿음의 단위를 채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매일 한 바퀴씩 견고한 예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대승에 심취한 여호수아는 예리고성에 비해서 그 규모가 훨씬 작았던 아이성에 대해서 군사의 단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마 21:21).”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큰 결실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은 믿음의 단위(표준)가 채택될 때 가능함을 역설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은 고침을 바라는 두 시각 장

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두 시각 장애자는 “주여 믿나이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믿음의 단위를 선택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확증하십니다. 그러자 두 시각 장애자의 눈은 곧 밝아졌습니다(마 9:29).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즉각 일반적 단위를 말했습니다. 적어도 200테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의 단위가 아닌 믿음의 단위를 채택하라는 개념에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믿음의 단위를 채택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민자들이 빨리 정착하여 미국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각종 표준(단위)인 달러, 마일, 갤런, 파운드, 스케이피트 등에 빨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강국을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국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준(단위)에서 믿음의 단위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믿음의 단위를 채택한 자에게만 강국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강국에 대한 꿈을 현실화 시키는 열쇠가 됨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강국의 삶을 확보하십시오.

자전거를 타듯 살아가는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어렸을 때의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합니다. 저는 가끔 국민(초등)학교 때에 자전거를 배웠던 일을 기억합니다.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제가 앞으로 커서 장사꾼이라도 되려면 자전거 정도는 탈 줄 알아야 하신다며 돈을 지불하고 한 시간씩 자전거를 빌려다 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논밭으로 굴러 떨어져서 옷이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터득하느라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피가 흐르는 무릎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누군가에게, 특히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넘어진 장면을 들켰을 때였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제가 자전거를 통하여 배운 진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열심히 페달(pedal)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는다는 말은 어디가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행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가느다란 두 바퀴로 프랑스의 굽이진 산비탈길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사이클 선수들을 보노라면 그들의 탁월한 균형 감각이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산다는 것은 자전거 타기와 흡사합니다. 때로는 빠른 속도로, 때로는 느린 속도로, 우리는 매일 매시간 어떤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뒤로 갈 수 없는 두 가지

가 있는데 비행기와 자전거입니다.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실수한 일은 뒤로하고 앞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슬퍼하되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되 절제를 잃을 정도로 기뻐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랑을 할지라도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물을 보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쁜 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하지만 칭찬할 일도 한두 가지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지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짐을 싣고 갈 수도 있고, 사람을 태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 20리가 넘는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오랜만에 누와 매형을 만나고 오던 날은 지금도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제 자신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오늘도 앞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지, 그리고 균형감각은 아직 건강한지, 매일 제 속사람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곤 합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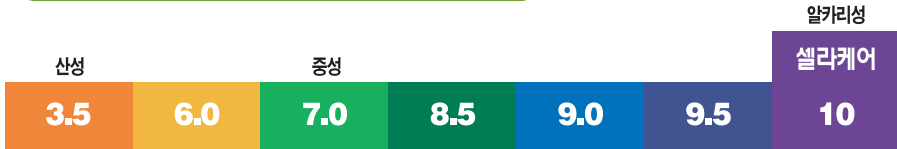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0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유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3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대적인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 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철(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든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락(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5

당뇨병이란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인슐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것은 증세가 없이 야근 야근 피곤한 후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 에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졌다 다면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것처럼 당뇨병은 약이 없다는데어떻하면 치유될수 있을까요? 성경말씀 에스라서를 잠시 살펴본 후에 사실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느헤미야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바사제국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주축되어서 약 70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중에 특이한 것은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그러나 에스라는 주로 밖쪽쪽을 재건하였다. 에스라서에서는 성벽의 안쪽에 해당하는 성소가 재건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제국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 건축하시고 이에 필요한 자금 또한 제공해주게 됩니다. 바사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길은 매우 험난하고 적군과 도적들이 들끓어서 위험한 길이었 습니다. 에스라는 고레스왕에게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리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때에도 느헤미야서의 도비야와 산발랏 과같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성전재건을 방해하지만 제단과 성전은 재건되고 그곳에서 우월점을 기념하며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몇구절 읽어보면 1장 1절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신 바사 왕 예루살렘에 집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절에서 살펴 볼 것은 27자로 첫째는 왕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고하였고 하였으니, 왕에게 전도를 한것이고, 두번째로는 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을 가지고 약 1500km 그라나가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험난하고 머나먼 길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않려고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9장과 10장에는 죄인됨을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라고 하였으니,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에 굳게서서 자신도 어려움에서 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당뇨병 치료방법으로 돌아오면 혈액만 깨끗해진다면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병에서도 완치될수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칼럼에서 소개했던 2년동안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러던 사람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1번 신장투석을 하게되었다고 소개 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피를 걸러 줄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병원진단서를 보여드릴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게도 해드릴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유대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병도 낫을수 있다고 믿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대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로리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드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우리 성도들 가슴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기독교기도운동본부, 광복 69주년 기념 특별기도회 개최



광복 69주년을 기념하여 특별기도회가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광복 69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한 '특별기도회'가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지난 2일 오전 10시 기독교기도운동본부(대표회장 강영선 목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 마음과 목소리로 기도했고, 함께 애국가 및 만세 삼창을 외쳤다.

이 선 목사(총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강영선 목사(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하고, 이정준 목사(진행본부장)가 대표기도를 한 후 주광석 목사(조직본부장)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단9:1-6)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주광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이 기도 덕분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이 장점만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외적으로는 창대해졌지만, 내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목사는 여러 가지 한국병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하나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그는 "이 일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앞장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일어났다"며 "31운동에 앞장 선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라 했다.

그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했기에 다시

한 번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한을 움직이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북한에 변화가 일어나고 남북통일이 올 것"이라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라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진동은), "대통령과 국민행복을 위해"(김병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김시중),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황세한), "기도운동과 사업계획을 위해"(김우경) 함께 기도했다.

행사는 엄신형 목사(대표총재)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박기성 기자

MK 문제 방치한 한국교회, 선교 '3대 낭비' 초래했다

한국선교의 병목현상, 선교사 자녀 문제가 선교의 발목을 잡아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KOMKED) 명예이사장 임덕순 한가람교회 원로목사는 "MK 문제는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의 주변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여야 한국선교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더 나은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목사는 선교타임즈 8월호에 실린 'MK문제와 한국선교의 미래'에 대한 글에서 "선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선교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동역자가 필요하며, 파송기관도 선교사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면, 숨겨진 발가락 열 개는 선교사의 가족, 특히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발가락 중 하나가 다쳐서 아프면, 발이 몸을 지탱하고 설 수조차 없는 것처럼, 선교사가 건강하게 사역하려면 신발 속에 숨은 발가락들도 보살펴야 한다"며 MK 사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MK들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난 경우에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교회가 MK 문제에 신경 쓰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한국선교의 3대 낭비'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미래 인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임 목사는 "MK를 잘 양육하면 부모보다 빨리 배운 현지언어로 부모 선교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사역을 돕고, 장래에는 부모보다 더 유능한 선교사가 되거나 우리나라의 첨병이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MK 교육을 외면하는 사이 많은 아이가 대책 없이 파송한 파송교

회와 자기를 끌고 낯선 곳에 온 부모를 원망하며 정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임 목사는 "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보통 2천불 내외의 선교비를 보내지만, 이는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생활비에도 모자란다"면서 "결국 자녀교육에 우선 사용하면 선교비는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 되어, 선교사는 보냈으나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선교사 인력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사 중 대부분 자녀교육이 가능한 대도시 학교 주변에 거주하면서 일거리를 찾거나, 아빠는 선교지에 있고 엄마는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이 되고 있다"며 "결국 MK 교육 때문에 선교사가 학교 주변에 발이 묶여 필요한 사역지에 배치되지 못하니 선교사 인력을 낭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목사는 M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MK학교에 한국인 교사선교사를 파송해 한국MK들을 가르치고 학교 운영에도 동참하게 할 것 ▲학교 부근에 한국MK기숙사를 설립·운영하고 대리부모가 찾아가 아이를 맡아주어 부모 선교사를 전방 사역지로 재배치할 것 ▲MK들이 외국에서 한국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교재를 공급할 것 ▲평신도를 교사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독려하고, 목사와 대등한 자격으로 파송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그는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싶은 MK를 위한 기숙사 등 기반을 마련할 것 ▲젊은이들의 교사선교사 헌신을 독려할 것 ▲전세계 흩어진 MK들이 서로 교류하며 미래에 책임을 느끼도록 도울 것 등 한국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월드미션대학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의 현장 사이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p>신학과 이민교회와 세계선교 사역자 훈련과정</p> <p>성서학박사 / 신학석사 / 목회학석사 / 목회학박사</p>	<p>기독교 상담학과 한국과 미국 상담협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과정</p> <p>상담학박사 / 상담학석사</p>
<p>원격교육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p> <p>성서학박사 / 상담학박사 / 신학석사 / 목회학석사 / 가정상담 / 유아교육</p>	<p>음악학과 교회음악과 예배사역자로 세움 받는 과정</p> <p>음악학박사 / 음악학석사</p>

우수한 교수진 • 최신교육시설 • 저렴한 교육비 • 정부재정지원

LA 캠퍼스 • OC 교실(나침반 교회)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미 군복 징교 지원
- 미 연방정부 학비 지원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E-mail: wminfo@wmu.edu Website: www.wmu.edu

입학문의
213.388.1000 Ext. 106
E-mail: admissions@wmu.edu
Webs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ts ABHE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인권 유린' 윤 일병 사망에 교계 대책 촉구

NCKK와 예장 통합 규탄 성명 발표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22사단 총기사망사건 등 군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윤 일병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교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병영 문화 개선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군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병영 문화 혁신을 촉구했다.

NCKK 인권센터는 "군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대대적인 군 개혁을 통해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전을 기해야 한다"며 "그저 사건 사고를 관리 소홀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과 군대 내에 최소한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버리고 병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장 통합은 "최근 제 22보병사단 총기사망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병영 내 사망사고들과 특별히 이번 28보병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개인과 사회발전기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한 생명이 폭력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애통함을 나타냈다.

예장 통합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 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바야 하는 부모의 고통과 좌절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군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윤 일병이 집단폭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에 더욱 분노할 따름"이라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윤 일병의 눈물을 닦아주고 윤 일병이 과제로 남기고 간

군대의 구타가혹행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예장 통합은 "지난 25년 동안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군내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국민들은 군이 부당한 자기개혁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을 근절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은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날려 버렸다. 이번 사건은 솔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기는 커녕 '야만적 폭력'이 음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집단폭력행위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 "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마치 조직 폭력배들의 힘겨루기 마냥 자기보다 아래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비인격적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고 군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장 통합은 먼저 철저한 군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예장 통합은 "윤 일병 사망 전에도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이 '대물림' 됐던 것으로 알려진 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거짓 없이 밝히고 유사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군내에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회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임을 군 수뇌부는 명심하고 엄정한 책임적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윤 기자

기독대학 총장 아들 자살... 또 슬픔에 잠긴 美 교계

릭 워렌 · 조엘 헌터 목사 가족의 비극 반복돼



어건 케이너 총장의 아들 브랙스톤 케이너(15) ©FACEBOOK/BRAXTON CANER

미국 교계가 '또 다시' 들러온 자살 소식으로 슬픔에 잠겼다. 조지아 주 마운트버논에 소재한 기독대학인 브루튼파커칼리지(Brewton-Parker College)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건 케이너(Ergun Caner) 총장의 아들 브랙스톤 케이너(15)가 자살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사실임을 밝혔다.

이 성명은 "이 소식을 비통한 마음으로 전한다. 모든 브루튼파커칼리지의 가족들이 케이너 총장과 그의 아내 질, 그리고 막내아들인 드레이크와 함께 사랑 받는 아들이 형이었던 브랙스톤 케이너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브랙스톤은 6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며 아버지인 케이너 총장이 직접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브랙스톤은 활구가 넘치고 명량했던 성격이었으며, 학교 풋볼팀에서 수비수로 활약해 왔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케이너 총장의 가족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

다. 브랙스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과 SNS상으로 교인들의 애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그가 다니던 알레도고등학교의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브랙스톤의 가족들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전했다.

브랙스톤이 풋볼팀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들 중 한 명의 어머니인 에미나 팔루스액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조금 전 브랙스톤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브랙스톤이 풋볼팀 친구들을 좋아했다며, 장례식에 이들을 위한 자리를 특별히 만들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밝히며, "브랙스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교계 지도자들의 아들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교계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 이사이자 세계복음연맹(WEA) 이사로 섬겨 온 조엘 헌터 목사의 아들인 아이작 헌터 목사(36)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작년 4월에는 새들백교회 리 워렌 목사의 아들인 매튜 워렌(27)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 미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교인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 주었다.

축망 받는 젊은 목회자였던 아이작 헌터 목사는 교회 재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담임목회자직에서 물러난 뒤 자살했으며, 매튜 워렌은 어릴 때부터 알아 온 정신 질환을 비관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워렌 목사는 아들의 자살 이후 한 달여간 교회 설교를 포함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들과 애도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복귀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다.

손현정 기자

악마송배의식 오클라호마시티 시민 센터에서 개최 예정

행사 반대하는 청원에 3만 7천 명 참여

3만 7천 명이 넘는 이들이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열릴 예정인 악마송배의식을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 도시 로마가톨릭 대주교 역시 이에 항의했다. 미국전통가정자산수호협회(the American Society for the Defence of Tradition, Family and Property)의 존 리치(John Ritchie) 학생 행동 책임자는 "악마송배의식은 우리 국가의 뼈대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다. 이 항의에 동참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러, "악마송배의식의 유일한 목적은 가장 음란하고 외설적이며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톨릭 미사와 성체 성사(Holy Eucharist)를 공격하는 것이다. 악마송배자들은 교회로부터 성별된 예배자를 빼앗아 끔찍한 방식으로 훼손한다"고 했다.

악마송배의식은 9월 21일 이 지역 시민 센터(Civic Center)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식은 오클라호마시티 지역 악마송배 단체의 대제사장이 아담 다니엘즈(Adam Daniels)가 계획했다. 다니엘즈는 악마송배의식에 가톨릭 미사와 유사한 주제가 포함돼 있으며 참가자는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예배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전통가정자산수호협회는 이 송배의식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24일 현재까지 3만 7,877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목표는 5만이다.

이 청원서에는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9월 21일 오클라호마시티 시민 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악마송배의식을 완전히, 강력히 반대한다. 당신에게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백만 명, 오클라호마의 가톨릭 신자 20만

명과 미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 행사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신성모독은 절대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협회는 청원서를 오클라호마시티 시민 센터의 스테판 샤프(Stephen Sharpe), Mick Cornett) 시장과 메리 폴린(Mary Fallin) 주지사에게 보냈다.

오클라호마시티 폴 코클리(Paul Coakley) 주교는 이 도시 공직자들에게 악마송배의식 개최 중단을 위한 중재를 촉구했다.

코클리는 "시민 센터가 명백하게 가톨릭 미사를 우롱하는 불경스러운 행사를 위해 티켓을 팔며 이를 오락거리로 선전한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가슴 아프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9월에 시민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악마송배의식은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의 가장 성스러운 믿음을 악마적으로 도전하고 곡해하는 것이다."

리치는 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미국인을 비하하는 연단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촉진하는지" 물었다. 그는 "이 행사는 공공의 선에 해를 끼치며 센터 직원들과 정부 노동자들은 가톨릭 신앙을 겨냥한 행사를 돕고, 이 행사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5월에 하버드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와 유사한 악마송배의식이 대중들의 항의로 즉시 취소됐다고 언급했다. 리치는 "이 행사도 취소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디 기자

9개월 공식 美 국제종교자유대사에 유대인 랍비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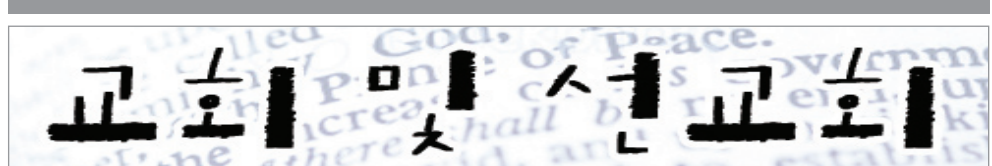
미국의 국제종교자유특임대사(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 유대인 랍비 출신인 데이비드 사퍼스테인(David Saperstein)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가 7월 28일 보도했다. 수잔 존슨 국무 차관이 대사를 사임한 지 9개월 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 있어서 지금 같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랍비 데이비드 사퍼스테인이 미국인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전부터 그와 함께 일하길 고

대했다"고 말했다. 기독교박해 감시단체인 ICC(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아이작 식스(Isaac Six)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임명이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만 명의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국 행정부는 국제적인 종교의 자유 문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퍼스테인은 유대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번 대사직을 맡게 됐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방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은말, 이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F.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7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신교사 양성
- 역설이나 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함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요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원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kuhnhol@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E. 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 (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진.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화를 이루고, 이념을 선택하며, 이념이 정서화되어, 선교를 영혼을 순종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9:45,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net.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희철 담임목사

벤추라 감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밸리채플), 목요장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장성집회 오후 7:45 (밸리채플)

최희철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웨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분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우리는 한 가족' 미국장로교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 성료

주승중 목사 강사로 초청, 총회 관계자도 참석해 축하



미국장로교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가 열렸다. ©중대서양대회

미국장로교(PCUSA)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가 지난달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3박 4일간 미국 최고의 휴양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머틀비치에 위치한 킹스톤 플랜테이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23개 회원교회에서 45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담임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매시간 큰 은혜와 감동의 예배를 인도했다. 주 목사는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성공해야 한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 전부의 실패와 같다. 문제 많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것처럼, 문제 많은 이민의 삶 속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발견하자"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의 사도로 우뚝 설 것을 강조했다. 특별히 첫날 개회예배에는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 그레디 파슨스 목사(Rev. Gradye Parsons)가 참석하여 축하함으로써 교단에서 한인교회들에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파슨스 목사는 "교단 총회는 더 이상 개교회를 통제하지 않고 개 교회와 당회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으며, 신학적인 논란도 모두 위임하고 있다. 선교 역시 교단 중심의 선교보다 개 교회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고 있다. 한인교회들도 한미교회를 통해 교단의 큰 틀 안에 있지만 한인들의 신앙과 당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

롭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매년 여름 열리는 가족수양회는 말 그대로 회원교회의 가족됨을 확인하고 한어권 성인과 영어권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자리다. 집회 기간 중 3살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베이비시팅이 제공돼 젊은 부부들도 마음 편하게 집회에 참석해 영육간에 힘을 누리 는 시간이었다. 또한 2세 자녀들은 카운셀러들과 함께 속박하며, 진학진로, 신앙상담 그리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나눴으며,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됐다. 중대서양대회장인 최병호 목사(베다니 장로교회 담임)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교단은 개 교회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더불어 신앙과 신학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장로교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우리의 고유한 신앙과 전통신학을 준수하며, 교단 내 한미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인교회들을 복음적인 교회들로 세우려는 일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중대서양대회가 전국총회를 주최하는 만큼 대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공적이며 가장 은혜로운 전국총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희 기자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30개국으로 지부 확대할 것

GSM 선교회, 2014년 세계 선교대회 및 가족 수양회 개최

전 세계 500여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는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선교사 Good Shepherd Mission 이하 GSM)는 지난 7월 27일(주일)부터 30일(수)까지 시애크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4년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 수양회'를 개최했다. GSM 선교회는 1대 1 동역 선교를 통해 '100달러가 꼭 필요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초교파 선교단체로, 2002년 7월, 15명의 선교사 후원을 시작으로 지금껏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65개 선교국의 선교사 531명을 매달 섬기며 동역하는 탄탄한 선교단체가 됐다. GSM의 선교 일선의 선교사와 후방의 후원자를 1대 1로 연결하며 특히 후원금 100%를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자들과 세계 선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 수양회는 전 세계에 파송돼 있는 GSM 선교사들과 가족, 후방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세계 선교의 현황과 사역의 발전 방안을 나누고, 선교지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선교사들이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고 영육간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 올해 세계 선교대회에는 주강사인 장동건(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 선교사를 비롯해 이은욱(인도), 이병구(요르단), 안재현(일본), 이광보(아르헨티나), 박용순(파라과이), 김영철(캄보디아), 임한곤(파라과이) 선교사 등 세계 각국과 미국, 한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 각국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선교지의 생생한 사역 간증과 보고로 참석자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심었다. 또한 후원자 간

증 및 특강 시간도 진행됐다. GSM은 이번 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사 간 긴밀히 교류하고 선교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부를 30개국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수립했다. 또한 내년에는 일선 선교사를 580명으로 확대하고 연말에는 650명까지 설교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에는 선교 전략회의를 갖고 더욱 체계적인 선교 후원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현재 선교 국가를 65개국에서 100개국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선교사 1000명, 후원자 2000명을 목표로 사역을 추진하며 동역 선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MK(선교사 자녀) 사역과 1세대와 2세들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 등으로 사역 영역을 확장하기로 했다. 황 목사는 "GSM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3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성장했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GSM은 이제 100불 선교와 더불어 확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충실한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GSM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선교 후원 사역을 추진해 왔다"며 "선교 후원금이 영혼 구원을 위해 피땀 흘리는 선교 현장에서 결실을 맺는 선교나무로 자라고 있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뉴올리언스신학대학원, 둘루스 캠퍼스 본격 시작

뉴올리언스신학대학원(NOBTs)의 조지아 주 둘루스 캠퍼스가 본격 시작된다. NOBTs 수업은 18일 시작되며, 25일 찰스 켈트 총장이 애틀랜타를 찾아 학생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피터 켈트릭 박사(앨라배마/조지아 부학장, 북조지아센터 디렉터)는 "2년 전부터 한국어부 프로그램을 둘루스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가을학기에 처음으로 둘루스 캠퍼스에서 한인 학생들

을 맞이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어부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둘루스에서 시작되는 한국어부 가을학기에는 일반 수업과정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Hybrid) 과목, 온라인 수강, 인디펜던트 스터디, 주말 집중 수강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 678-905-7667, kti@nobts.edu

건강한 목회자 가정은 건강한 목회와 교회로 이어져

한인연합감리교 2014년 동남부 목회자 가족 연합수련회 마쳐



한인연합감리교 2014년 동남부연합회 목회자 가족 연합수련회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2014년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남부 목회자 가족 연합수련회가 하얏트 플레이시 첸틸리 호텔과 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성호 목사)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개최된 이번 수련회에는 총 25가정 80여 명이 참석하여 특강과 목회에 대한 나눔의 시간 등을 가지며 2박 3일 간의 일정을 보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남부연합회 회장인 정성호牧사는 초청의 글에서 "목회자가족 연합수련회는 목회자들의 목회정보 교환과 가족들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건강한 목회자 가정,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번 수련회의 의미를 부여하며 초청하였다.

버지니아연회의 조영진 감독도 회의 때문에 수련회 참석은 못 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버지니아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인사의 글을 참석자들에게 전

했다.

이번 수련회는 첫날, 이철구 목사(남부 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의 특강과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역이민 시대의 이민목회와 교단의 동향"이라는 주제의 강연 등을 통해 참석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공동체 프로그램과 목사와 사모의 중보기도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둘째 날 워싱턴 DC의 박물관이나 학교를 관광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일부 참석자 가정들은 수련회 일정이 끝난 후에도 워싱턴 DC에 남아서 25일과 26일에 열린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행진과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남부연합회는 회장 정성호 목사, 부회장 백승민 목사, 총무 홍성국 목사, 회계 김형열 목사 등이 섬기고 있다.

박현희 기자

KUMC 북조지아연회 여성교회 선교학교 열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주제로 에덴스에서



북조지아연회 여성교회 선교학교 ©NKUMW 7월 뉴스레터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를 주제로 지난달 18일과 19일, 에덴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2014년 북조지아연회 여성교회 선교학교가 진행됐다.

메리안 김 사모(연합감리교 한국어 코디네이터)는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염려치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구하되, 그 필요가 없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평안함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 가정, 교회와 기도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속

한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모여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 힘, 새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권면했다.

선교학교에 참석했던 이희숙 집사는 "나의 필요와 간구를 포기함으로써 평화가 주어진다"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기도에 헌신해,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응답할 준비를 위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신디 기자

디딤돌선교회,뱅크해드에 노숙자 선교센터 마련

외관 완벽하지만 내부 전부 수리해야 하는 상황, 기도와 후원 절실

노숙자선교단체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에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선교센터를 약 3주 전 마련하게 됐다. 단순히 먹고 입히는 사역을 넘어 노숙자들을 재활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했던 새로운 선교센터는 뱅크헤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과거 초등학교로 사용되다, 몇 년 전부터 데이케어 센터로 사용되던 이 선교센터 건물은 1.5에이커 땅에 15,000SF 규모다. 바로 길 건너에는 센터 힐 파크가 있으며, 경찰서가 인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

송요셉 목사는 "한동안은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을 마음에 두고 노숙자들과 함께 건물을 돌면서 기도하기도 했다. 한 노숙자는 1000명 이상 건물을 돌며 기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건물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다운페이먼트를 할 돈이 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크리스천인 빌딩 주인이 우리의 사역을 듣고 가격을 낮춰 줬을

뿐 아니라 오퍼파이낸싱까지 해주면서 건물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다.

선교센터 건물은 기적처럼 마련됐지만 아직 할 일이 산다미다. 건물의 상태는 완전하지만 내부 카펫을 다시 깔고 페인트를 새로 해야 하며, 샤워시설, 화장실, 부엌 시설 등을 전부 새롭게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탁자와 의자, 냉장고 등 많은 가구와 가전제품이 필요해 한인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네이션 해주길 요청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이와 더불어 영성훈련센터와 직업훈련센터, 노숙자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열어 청소년들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또한 내부에 숙소를 마련해 노숙자 리더들에게 생활의 공간도 열어주고자 한다.

디딤돌선교회의 힘찬 도약을 위한 많은 기도와 후원이 요청된다.

▷ 문의 : 404-429-9072(송요셉 목사)

박현희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30
평일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한어평생찬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 / F.(562)691-0698 / nachimbans.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찬양)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평야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수요기도 저녁 8:00
수요기도 저녁 8:00
금요공부 저녁 8:00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 F.(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포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본당)
2부예배 오전 10:00(본당)
3부예배 오전 12:30(FC재동)
EM예배 오전 10:00(FC재동)
오후 12:3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 6:00(토)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평야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월일예배(수) 오후 7:30
성령집회(매월 둘째 금) 오후 7:30

김상도 목사
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월일예배(수) 오후 7:30
성령집회(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구원받은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임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본당)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담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담하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령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여름 핫 세일!!!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성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음.
- ★ 비염,코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찰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민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도 뜰아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향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은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박사로서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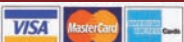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Inc. / HQ 바이오텍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가톨릭으로 수평이동? ‘교회와 성당’ 다른 점 못 느껴서”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조직신학자 정성욱 교수(덴버신학대학원)는 최근 본지에 ‘한국교회 위기의 탈출구: 다른 복음을 몰아내라’는 칼럼을 다섯 차례 연재했다. 정 교수는 기복주의·율법주의·방종주의·신비주의·영지주의를 한국 교회의 5대 ‘다른 복음’으로 지적하고, ‘복음의 본질 회복’을 역설했다. 정 교수에게 ‘다른 복음’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한국교회의 현안과 나아가 방향에 대해 실적인 면들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른 복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성도들이 함께 회복해야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며 이를 통해 사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복음’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순도 100%’의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 현장에서 ‘연약한 자나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교회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온 국민들을 향한 교회의 섬김과 낮아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이것도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이지만,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코이노니아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과 자원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게 인력과 자원을 보내는 코이노니아, ‘나눔의 목회’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목회자들의 자질 향상’입니다. 공인되고 이름이 알려진 신학교를 나온 이들보다, 공신력도 없고 인가도 없는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이 더 많아진 게 현실입니다. 공인된 신학교 출신도 자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며 그 뜻을 실천해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4시간 365일 일상의 현장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삶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방향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반응이 논란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은 고전적 이미지와 좌파 이데올로기 수용 등으로 ‘마케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도 한국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성당’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평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개신교가 믿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가톨릭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개신교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가톨릭을 포함한 다른 종교들과 다양한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리를 모르기에,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교회는 이미 친동성애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큐메니칼 주류 교단들에서는 이미 대부분 동성애자 성적 안수까지 허용한 상태입니다. 에큐메니칼이 가진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이 동성애자 옹호로 드러난 점은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에큐메니칼 교단에 침체와 수적 감소가 이뤄졌습니다. PCUSA 같은 경우 150만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합동이나 통합보다 적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갱신적인 흐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에 반해, 에반젤리칼(복음주의) 교단들은 여전히 견직한 편이지만, 점진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의 당면 과제는 ‘젊은이들의 감소’입니다. 10-2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복음주의권의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 보자는 흐름들이 있지만, 조직신학자로서 볼 때 미국 복음주의권이 회복해야 할 것은 정통 교리와 성경적 진리에 대한 교육과 이해입니다.”

-젊은이들의 감소 문제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10-20대가 복음에 반응할까요.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과 존재가 가진 깊이(depth)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표면적 차원에 머물지 말고, 교회는 깊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깊은 복음, 깊은 교회, 깊은 인격, 깊은 공동체, 깊은 사랑 등 ‘깊이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깊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기 힘들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문화가 가진 빠르고 바쁘고 산만하고 복잡한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면서 여유있고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서야 합니다. 깊은 말씀묵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묵상, 깊은 기도의 세계 등 결국은 영성입니다. 일상에서 영성이 회복되고, 깊음의 차원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에 대해 정리해 주신다면.

“기독교 안에 혁신과 갱신의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교육이 끝났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혁신’이 많이 회자되는데,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연구와 묵상과 성찰을 통해 교회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대웅 기자

주님의 위로 필요한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찬양선교사’ 이동영 김윤희 부부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희 사모, 이동영 목사가 LA를 방문했다.

찬양선교사 이동영 목사, 김윤희 사모 부부가 찬양집회 차 LA를 방문했다. 미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한인 찬양사역자 가운데 이 부부에게 특별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는 다소 화려해 보이는 이력이다. 이 목사, 김 사모 모두 시카고 루즈벨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이 목사는 루즈벨트대학교 재학 당시부터 각종 공연의 솔로리스트 자리를 꿰차고 세계 10대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시카고 리릭 오페라 합창단의 단원으로 선발됐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던 시카고 심포니에서도 코러스로 활동했다. 김 사모는 한국에서부터 창원시립합창단 등에서 활동하다 유학 와 루즈벨트대학교의 최고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유망했다.

그러나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이력에 비해 음악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인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또 가정의 불화까지 겹치자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그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다시 이 부부를 잡아 주셨다.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이동영은 “아이가 유산되지 않고 태어나면 그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했던 어머니의 약속대로 그제야 신학의 길로 들어섰고 42세에 늦깎이 목회자가 됐다. 이미 10여 년 가까이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찬양 사역을 해 왔던 김윤희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집 앨범 <주께서 함께 하시면>을 발표하며 본격적 사역을 시작했다.

이러 김 사모가 2집 앨범을 준비하던 중, 앨범 제작을 맡았던 최덕신 전도사는 부부가 함께 찬양할 것을 제안했고 영감결에 이동영 목사도 앨범에 참여하게 됐다. 이 앨범의 타이틀은 <위로>였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이 부부에게 임했다.

이 부부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내걸고 있는 ‘찬양선교사’라는 타이틀 때문이다. 찬양사역자가 아닌 찬양선교사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선교’ 때문이다. 이들은 어디든지 간다. 사례비가 얼마든지, 대우가 어떻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다. 자신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다. 노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출소자 모임, 군부대, 기독교 학교, 각종 모금 행사 등 찬양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간다. 그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거의 없는 저 구석지고 소외된 곳도 이 목사 부부의 주요 선교지다. 필리핀의

한센병 환자 병원을 방문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미국 인디언 마을, 미얀마 난민 부족도 찾았다. 이제 곧 파라과이 선교도 앞두고 있다.

이 부부는 자비량 선교사로서 어느 교회나 단체의 후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찬양 사역만 하고 있다. 이 목사는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했다. 김 사모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양의 은혜를 주실 때는 찬양을 나누고, 또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자신들보다 힘든 선교지에 나누어 주는 역할도 자신들의 몫이란 것.

이번 방문에서 이 부부는 나성순복음교회, 은혜한인교회, 은혜로교회 등에서 집회를 섬겼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마약 중독 청소년들의 재활을 돕는 햇빛재단을 방문해 그곳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찬양집회를 선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선교의 각오와 마음을 다졌다.

이들은 말한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사역하려 하지 말라. 가진 모든 것, 설령 그것이 찬양하는 은사라 하더라도 그것까지 내려 놓았을 때 비로소 참 사역이 시작된다.” 찬양 사역이 때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역으로 택하고자 하는 후배들이 많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선교사의 마음이 없이 꿈, 자기 계획, 욕심으로 하다가는 금세 포기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큰 교회만 찾으면 사역할 곳이 없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찾으면 사역의 기회가 너무도 많다.”

김준형 기자



이동영 목사, 김윤희 사모 부부가 함께 부른 2집 앨범 <위로>

미주비전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4년 8월 10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미주비전교회 새성전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장로 장립	권사 임직
이지락, 신동철	윤현숙, 전재남, 신순남
안수집사 임직	김선인, 윤현희
김진태, 이광원, 황순호	
명예 권사	권사 임명
김미선	홍옥단, 유혜숙

담임 이 서 목사

www.visioncc.org

714-999-9900

미주비전교회

VISION COMMUNITY CHURCH

새성전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최덕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①

로마가톨릭교회의 ‘다름’ 은 과연 용인할 만한 수준인가?

기독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사람의 성격과 생김새가 다르듯,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앙·표현·실천·관심은 조금씩 다르다. 자신과 다른 견해와 고백을 가진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의 넓이와 깊이가 필요하다. 삶의 형태 차이를 가진 교회들의 에큐메니칼 활동은 언제나 절실하다.

기독교인의 결함 가운데 하나는 같음보다 다름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인간의 죄성(罪性)은 동질성보다 차별성을 부각시켜 타인이나 타 집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되기 위해 애씀이 마땅하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가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경우에는, 같음보다 다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름에 이르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가 가진 독특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고, 사실상 이들에 의해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과 밀로 ‘귀정(歸正)’하는 형태의 교회일치운동이 추구돼 왔다. 개신교회가 로마가톨릭교회의 가시적인 조직체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고속 행진을 해 온 것이다.

최근 한국의 로마가톨릭교회, 정교회, 개신교회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회들이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조직했다. 신앙고백 또는 교리, 곧 신앙과 가시적 조직체 곧 직제를 통일시키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를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은, 신자들이 서로의 교회를 교파나 교단을 바꾸는 정도로 여기는 현상을 낳고 말았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하나의 거룩한 교회(Unam Sanctam)’를 추구하자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렇듯 서로가 모두 같은 ‘기독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결국 같은 교회인가? 두 교회는 형제관계인가? 교파가 다른 정도인가?

지난해에 모인 WCC 제10차 부산 총회는 종교다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선교-전도 선언서’를 선포했다. 한국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와의 일치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에 적극 정성을 다했다.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거액의 국비를 보조하게 했다.

WCC 부산총회 뒤, 한국사회에는 대형사고가 거듭 발생해 왔다. 세월호 침몰로 꽃 같은 어린 학생들 수백 명이 죽었다. 지하철 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건물 화재 사고, 자살, 열차 사고, 소방헬기 추락사고, 악성 언론으로 말미암은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사고 등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거꾸러진 것은 그 어떤 사고보다 더 심대하다. 대한민국은 ‘패닉(panic)’ 상태다. WCC 부산총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개신교회와 정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가 가시적으로 하나가 되는 길이 없지 않다. 입헌군주제처럼 교황은 상징적 인물로만 존재하고, 그 조직 안에서 개신교회의 교리, 제도, 예배, 실천을 그대로 살리면 존재할 수 있다. 이 구도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기본 진리-교리에 일치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여러 비성경적 미신적 교리들을 폐기처분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현재의 교황은 종종 유별난 행동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성경적·역사적·이론적 근거가 없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제도와 교리들을 폐기처분한다고 선언할 용기가 있는가? 로마가톨릭교회가 역사적 기독교, 사도들의 복음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겠는가? 화체설, 연옥설, ‘기록되지 않은 성경’, 사제의 면죄권, 사도직 계승교리, 교황수위권, 교황무류교리, 만인보편구원주의, 종교다원주의, 계급주의 교회론, 미신적 마리아 교리 등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지 않겠는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 이후, 개신교 진보계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했다고 좋아했다. ‘갈라져 나간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일컬으면서 개신교회를 형제로 여긴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에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종래의 교회론을 바꿀 의도가 없었고, 바꾸지도 않았다고 천명했다. “유효한 성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황과 교제하며 그에게 복속하는 주교만이 유효한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개신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라

는 말은,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무류성 교리에 따르면, 위 성명은 교리·신앙·도덕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변경·취소될 수 없다.

로마가톨릭교회는 WCC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닌 집단’과 ‘교회인 로마가톨릭교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가담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WCC 하부조직에는 회원으로 가담하여 로마가톨릭교회 신학을 이 단체에 계속해서 강화시켜 왔다. WCC의 몬트리올 보고서(1963)의 ‘전통론’ 또는 ‘대문자 T 이론’은 로마가톨릭교회를 형제 교회로 인정하고, 개신교회가 교황좌 아래로 ‘귀정’하는 길을 만들어 준 대표적 신학문서이다.

로마가톨릭교회 교황은 바티칸이라는, 지구상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제국의 황제이다. 교황 방한에 얼굴을 내밀고 싶어하는 목자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NCCK 회원교회들, 특히 예장통합, 기하성, 그리고 WCC를 적극 지지했던 기독교 언론, 신학교, 대학교, 그리고 자칭 복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환영하고 싶어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후 개신교회 신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천주교회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과 더불어 다가올 한국 개신교 교인 수 감소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한국 개신교회의 키를 잡고 밀까부르듯 하고 계시 듯하다. 쪽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남게 되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 진리로 무장한 신앙고백 공동체는 교황의 방한으로 더욱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 동부지역에 몰려온 쓰나미는 핵시설을 강타하여 일본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슘(Cesium)이라는 방사능 원소의 오염이 가져올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다. 세슘의 맹독성이 너무 강하여 열도를 무인도로 만들 수 있다.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는 같음과 다름, 곧 동일성과 구별성이 공존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독특성이 심각한 이유는 세슘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균과 같이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기독교 또는 성경적 신앙을 추구해온 개신교회의 멸절(滅絶)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교회를 진리의 보루가 아니라 여러 미신과 인간적인 것들의 요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이어진, 유럽·북미·대양주 주류 교회들의 갑작스런 퇴락과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면서 로마가톨릭교회와 신앙과 직제 일치를 핵심으로 하는 WCC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사실상 주검으로 변했다.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관계는 형제인가?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인가?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교황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교인들이 빠져나갈까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다. 신자들이 떠날 경우, 교회를 폐쇄하면 된다. 목사직은 의식주 해결의 수단이 아니지 않은가.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에 때맞춰, 두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 차이 몇 가지를 주제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계속)

[이기범 칼럼]

수용성(Receptivity)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어느 목사님이 여자대학교에 가서 ‘배우자 선택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몇 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만을 보겠습니다.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 많은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존 포웰은 그의 책, 『왜 나를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이들과 사랑해 주기를 거절했던 이들의 산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과 건강은 그 사람이 성장

하면서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얼마나 수용 받았는가로 결정됩니다. 만약 수용 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다면 상처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감금하여 광속에 가두었습니다. 이 아이는 끝내 부모로부터의 거절을 이겨 내지 못하여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당한 거절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훈련>이나 차원 높은 <상담>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애정을 받는 관계 속에서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절당했을 때 화가나고,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복수심이나 증오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슬픈 음악만 듣거나, 무기력증에 빠



이기범 목사
스포캔한인장로교회

지기도 합니다. 살 맛을 잃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수용 받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수용을 받고 자란 사람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편합니다. 의사소통도 쉽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며 성장한 사람은 평범한 대화조차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고립되기

나 따돌림을 당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때와 거절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의 제사는 수용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들 각자가 바친 제물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짐승이든 농산물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가 화내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너를 소유하는 것이나, 너는 반드시 죄의 주인이 되어라.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창4:7)”라 하셨습니다. 가인에게는 ‘나의 어떤 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절할 수밖에 없게 했을까?’라는 자기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반성하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환경 탓, 조상 탓, 남 탓을 하고 있으면 나의 부족한 점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는 거절했지만, 사람은 수용하셨습니다. 그의 감정도 수용하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죄에 대한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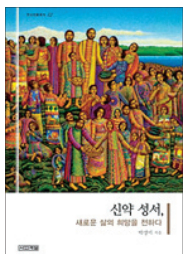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신약성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다
박경미 | 사계절 | 292쪽

오늘날 우리가 2천년 전에 쓰인 신약성서를 읽기 위해서는 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약성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저자는 책을 통해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곳에서 예수라는 영원한 청년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다.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구체적 공간 속에서 살아 숨쉬던 인물인 예수를 만나보자.



청년아 믿음으로 돌파하라
김한 | 라오북 | 256쪽

저자는 20대 때 군중목사의 길을 걷기 전까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나누고자 쓴 책이다. 청년들이 취업과 연애, 결혼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의 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믿음을 돌파구로 삼으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사역
조태성 | 베다니 | 149쪽

본인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꼭 필요한 때에 체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전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하는 책. 1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와 근거들을 성경적 가르침에 바탕하여 확신시키고, 2부에서는 치유집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전한다.



해방
페리 노블 | 두란노 | 240쪽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는, 다양한 고민들과 신앙생활 속에 뿌리내린 오해들을 짚어 준다. 지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울무는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무겁고 교묘하든지 두려워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자. 예수님께서 모든 지긋지긋한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책이다.



REVIEW

「쿠오 바디스」 신앙과 사랑으로 절대 권력에 맞서다

[기독교 고전 순례 24]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 바디스〉는 폴란드의 소설가 헨릭 시엔키에비치의 작품이다. 작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폴란드의 역사 소설가로, 조국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해외로 망명하여 투쟁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1895년 3월 바르샤바의 한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줄거리를 들여다 보면, 고대 로마의 장래가 유망한 젊은 장군 마르쿠스 비니키우스(Marcus Vinicius)는 우연한 기회에 퇴역한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Aulus Plautius) 장군이 딸처럼 키운 리기아(Ligia)라는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알게 되어 깊은 사랑에 빠진다. 리기아가 땅에 그린 물고기 그림의 의미를 모르는 그는, 네로의 심복으로서 총애를 받는 외삼촌 페트로니우스에게 청하여 리기아를 강제로 아울루스의 집에서 빼

내어 황제의 연회에 참석하게 한다. 왕에게서 정치적 포로인 리기아를 사받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사치와 향락이 계속되는 황제의 연회에 참석하게 된 리기아는, 틈을 타서 자신을 호위하는 거인 우르수스와 함께 비니키우스의 손에서 벗어난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향한 연정으로 괴로워하며 그녀를 찾아 헤매고, 킬로니데스라는 한 사기꾼을 통해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비밀집회 장소를 알아내고는 밤에 그곳을 찾아가간다. 리기아의 뒤를 밟다가 우르수스의 괴력에 부상을 당한 비니키우스는, 적의에 찬 자신과 킬로니데스를 향한, 리기아와 그리스도인들의 친절한 보살핌과 용서에 놀라게 된다. 그 결과 기독교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과 리기아에 대한 잘못된 사랑도 변화되어 간다. 리기아는 비니키우스

의 사랑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신앙적 순결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느낌에 혼란스러워한다. 한편, 네로의 방화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한동안 헤어졌던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약혼을 하고 비니키우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로는 로마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 대학살을 시작한다. 리기아도 원형 광장에 끌려나와 위험에 처하지만, 우르수스의 도움으로 살아남는다. 이어 병사들의 반란으로 네로는 자살하고, 비니키우스와 리기아는 시칠리아의 한 섬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다. 이 고전적 역사소설은 고대의 이교적 세계관 헬레니즘과 기독교 신앙과의 투쟁을 그리고 있는데, 후자가 승리하게 되는 필연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궁극적 목적은 당시 정치적 독립을 빼앗기고 열강의



쿠오 바디스
헨릭 시엔키에비치 | 민음사
전 2권

체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낙천적인 신념을 담고 있다. 제목 〈쿠오 바디스〉는 라틴어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묻은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쿠오 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에서 따온 것이다. 시엔키에비치는 1916년 11월 15일 조국 폴란드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70세를 일기로 스위스 베베이(Vevvey)에서 눈을 감았으며, 2년 후 그의 유해는 광복된 조국 폴란드로 옮겨져 바르샤바의 성 요한 성당에 안치되었다. 시엔키에비치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계적 고전 역사소설인 〈쿠오 바디스〉는 박해받는 폴란드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세계인의 가슴에 정의와 진리의 승리를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남아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故 하용조 목사 3주기 맞아 기념 도서 발간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 하용조 두란노서원 | 232쪽

故 하용조 목사의 3주기(8월 2일)를 맞아, 그의 설교와 어록 등을 모은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와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이상 두란노)>가 각각 발간됐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히브리서 등을 통해 '참된 믿음'을 이야기한다. 하용조 목사는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

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90%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고 경고한다. 책에서 그는 믿음에 대한 혼란과 착각, 오해 등을 풀어주고 있다.

하 목사는 자기 신념이나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희망 등 '믿음 아닌 것들', 이성과 현실에 의한 '작은 믿음' 등을 골라낸 뒤,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면서도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진짜 믿음', '큰 믿음'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성과 상식 이하가 아니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고 초대한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며 매일 성경도 읽고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해 이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믿음을 가지

려 하고, 내가 믿음을 세우려 노력하니 자주 행위와 율법에 얽매게 된다는 것.

그렇게 나로부터 만들어진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은 연단을 통해 단단해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에는 여러 단계와 종류가 있지만,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간단히 말하면 믿음 생활이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하용조 목사의 '어록 모음집'이다. '하루, 예수님, 성령님, '교회', '기도', '고난' 등 주제별로 하 목사의 365가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용조 두란노서원 | 272쪽

지 '말씀'들을 이성표 작가의 감성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배치했다.

"험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전에 단 한 가지 만은 반드시 점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

리나 고난의 의미를 알면 복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용서 없습니다" 등 곱씹을 만한 문장들이 담겼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하용조 목사의 따뜻한 믿음의 당부가 담긴 말모임"이라며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 멘토의 뜨거운 격려가 필요할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은누리교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 용인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는 이재훈 은누리교회 담임목사가 사회,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설교, 미네노 타초히로 요도바시교회 목사와 주선에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가 추모사, 가족 대표가 인사, 오카와 쓰쿠미치 아마토갈보리체플 목사가 축도했다. 예배 후에는 하용조기념관 착공식도 진행되었다.

신태진 기자

고난은 형벌 아닌, 더 깊은 사랑 샘솟게 하는 도구일 뿐

김정하 목사 이야기 담은 동화, '구두 닦는 성자'



구두 닦는 성자 | 이경윤, 지우 동아일보사 | 196쪽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도운,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성자(聖者) 김정하 목사의 이야기가 동화로 담겼다.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아픈 삶을 살았지만, 결코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로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을 선물한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지금도 루게릭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김정하 목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정하 목사의 삶은 순탄치 않았

다.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 공장 노동자, 커튼 가게 기사, 막노동꾼, 선원, 외판원, 노점상 등 온갖 갖은 일을 전전하며 주경야독하여 고등학교를 9년 만에, 대학교를 8년 만에 졸업했다. 전기 감전, 연탄가스 중독, 자동차 사고, 폐결핵 등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것만 해도 일곱 번이나 된다.

그러나 김정하 목사는 고비마다 구사일생했고, 어렵게 일하는 와중에 신학대학원까지 진학했다. 그러다 마침내 늦은 나이에 성남에 작은 교회를 개척해, 알코올 중독자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자꾸만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움직였다. 오래 전부터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던 김정하 목사는, 고심 끝에 구두통을 메고 거리로 나가 팻말 하나 달랑 놓고 구두를 닦았다.

"구두 닦습니다! 2,000원! 수익금 전액은 불우아동을 위해 사용!" 구두를 닦아 번 돈은 한국컴패션을 통해 알게 된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데 썼고, 이 일이 방송에 우연히 알려지면서 단번에 유명해졌다. 기적 같은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다. 급기야는 아름다운 마음과 끝없는 선행으로 '나눔의 상징' 같은 존재

가 됐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루게릭병에 걸려 더 이상 구두를 닦을 수 없게 됐다. 루게릭병에 따른 근육 위축으로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언어장애까지 겪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김정하 목사는 차라리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쓰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오히려 지금 삶이 덩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으로, 건강할 때는 몰랐던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됐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어눌하지만 아직은 "어버버 어버버"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하게 여겼다.

고난은 그에게 형벌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샘솟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었다.

글쓴이 이경윤은? 2010년 기독교신문에 동화 『천사와 할아버지』가 당선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세계의 천사와 악마』, 『아! 애양원』을 비롯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꿈을 향해 함께 걷어가는 친구』 등을 썼다.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글을 꿈꾸며 오늘도 글쓰기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린이 지우는? 홍익대학교 판화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미술교육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다양한 그림 표현을 연구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파란 젤리 병』, 『주문을 외워 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텔레비전이 없어진 날』, 『동화의 꽃을 피운 할아버지 권정생』, 『저항 시인들과 한용운』, 『아빠를 보내는 일주일』, 『영어로 읽는 자전거 도둑』 등의 책을 그렸고, 쓰고 그린 책으로 『유치원에 네가 가!』 등이 있다.

김정하 목사는?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공장 노동자, 막노동꾼, 선원, 출판사 외판원, 노점상, 건강식품 세일즈맨, 중국어학원 강사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주경야독하며 9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8년 만에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했다.

서울장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나와 2006년 살롬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던 중, 틈틈이 구두를 닦으며 모은 돈으로 제3세계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감동을 줬다.

2010년, 뜻하지 않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1년 가을, 안수를 받고 늦깎이 목사가 됐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임팩이 경멸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당뇨병의 원인

이제는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해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세포의 기능을 복원하여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2형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당뇨병 예방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r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기독법률가회 '제6회 전국대회' 주강사로 초청된 벤 토레이 신부의 '코이노니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더 많은 친구’ 를 얻기 위함이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2-47)”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완전히 헌신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본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탐비전센터에서 진행된 기독법률가회(Christian Lawyers' Fellowship, CLF) 제6회 전국대회에 주강사로 초청된 예수원 대표 벤 토레이 신부(64)는 2일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토레이 신부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막힌 담을 허시고’에 걸맞게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하며 ‘언어의 담’을 열었다.

토레이 신부의 가문은 이미 그의 아버지 대전덕(본명: 루빈 아처 토레이) 신부는 성공회 신부였고, 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 증조할아버지는 회중교 목사, 그리고 자신은 미국 동방교회 소속 신부로서, 전 세대가 교파의 담을 열었다.

미국인이지만 북한이 열렸을 때의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는 그는 민족의 담도 넘은 사람이다.

이날 벤 토레이 신부는 이 ‘코이노니아’, ‘하나됨’은 ‘우리가 꿈꾸는 것’,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헬라어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는 사람들 사이의 영원한 결속, 매우 깊고 깨뜨리기 어려운 연합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며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이나 상업적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가페라는 사랑은 ‘결심하는 사랑’이다.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라며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사랑하는 것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감정(attraction)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랑하기를 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 뚫어오르는 사랑,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며 “가정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은 결심하는 것이

다”며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토레이 신부는 “예수원의 좋은 점은 바로 그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많은 손님이 예수원을 방문해 2박 3일 있거나 3개월 지원생활을 한다. 또 3개월 후에 1년, 2년 수련생활이 있는데 같이 생활하고 노동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희망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죄 짓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토레이 신부는 역설했다.

토레이 신부는 “외부 사람이 보고 ‘기독교인입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타락하고 죄스러운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있으니 희망이 있다”며 “우리는

코이노(교제)로 끌어올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더 강한 이유다”고 그는 강조했다.

토레이 신부는 “요한은 이것을 통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쓴다”며 “우리는 늘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 기쁜 것이다. 우리는 하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곳 지상에 두셨다”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혹은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 ‘사귄’은 ‘소 한 마리가 방향을 바꾸면 다른 소도 함께 방향을 바꾸

다.

그는 또 “이것은 분리된 개인을 하나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헌신된 성도들의 관계이며 생명을 위한 헌신이다”고 역설했다.

벤 토레이 신부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이것이 ‘코이노니아’이다”며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한 얘기를 꺼낸 벤 토레이 목사는 북한 땅이 복음으로 열릴 것을 위해 준비하라는 감동을 2002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2005년 아내와 함께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정착했다. 그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성 베데딕 수사장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예수원 대표로 있으며 남북의 통일 시대 이



2일 기독법률가회 제6회 전국대회에 주강사로 초청된 벤 토레이 신부가 강연을 하고 있다.

눈물을 흘렸다”며 “이런 일이 3~4번 있었다”고 전했다.

토레이 신부는 이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며 “(통일이 되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날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하나되기를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다며 “그런데 그것은 은과 금이 쏟아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끝으로 벤 토레이 신부는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북한이 열릴 것이다”고 역설하면서 “(한국)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남북한 사람들도 하나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교회의 일치·화합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오상아 기자

하나됨은 우리가 꿈꾸는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 “한국교회 하나되면 남북한도 하나될 것” 강조

예수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내려가는 것이다”고 전하며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선교’에 관해서도 ‘코이노니아’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먼저 토레이 신부는 요한1서 1장 3-4절 말씀을 소개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벤 토레이 신부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영원히 지옥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 말이 맞고 사실이다”며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마 28:18-20)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친구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선교를 한다”며 “이 코이노

게 되고, 한 마리가 멈추면 다른 소도 경로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결함’,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레이 신부는 이어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 구절에 나오는 ‘교제’와 ‘통용’이라는 단어는 모두 ‘코이노니아’라는 한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라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완전히 헌신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본다”고 말했다.

후를 준비하고 있다.

토레이 신부는 먼저 “저는 북한에 관심이 일질 없었다”고 고백하며 “어느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관심을 부여주셨다”며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때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고통 당하는 분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됐다. 이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2-3일 뒤에는 온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북한 생각에



기독법률가회 제6회 전국대회에 ‘막힌 담을 허시고’를 주제로 진행됐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일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Chicago : Skokie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SONATA PREMIERE EVENT

SONATA PREMIERE EVENT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Puente Hills Hyundai

소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2015 SONATA SE BASE **\$888** +TAX **36 Mon.**
MSRP: \$22,085. 36 month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15 ALL NEW GENESIS SEDAN **\$428** +TAX **36 Mon.**

MSRP: \$55955 / SELL :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SAVE UP TO **\$15,000**

2013 NEW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